

2000.11.30 2:25PM

의왕시 '고교평준화 제외' 반발 (권선무/yoyo11@munhwa.co.kr)

30일 발표된 수도권 신도시 고교평준화의 대상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의왕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과 교육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특히 강상섭(姜相燮) 의왕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의왕지역을 반드시 고교평준화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강시장은 30일 고교평준화를 전면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의왕시만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의왕시에도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부교육청등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강시장은 또 의왕시가 고교평준화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12만명의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성(李成) 전교조 고교평준화 추진위원장도 의왕시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개발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조차 전혀 제기된바 없다며 안양, 과천, 군포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인근지역을 제외하는 발표가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위원장은 또 의왕시가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되면 매년 1500명 안팎의 안양, 과천, 군포시 중학생들이 고교입시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의왕시를 포함한 신도시 전역의 고교평준화가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여41의왕시 내선2동 대우아파트)백운중 학교운영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학부모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심각한 고교입시 탈락자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이번 발표를 철회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도 일제히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개발원의 이번 발표를 비판하고 있다.

박은경(여40의왕시 내선1동 주공아파트)씨는 의왕시를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제외한다니 그럼 여기는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란 말이라며 분개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에는 의왕시 내손동에 산다고 밝힌 박혜자씨가 의왕시 아이들은 계속 입시지옥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나는 글을 올렸고, 노재일씨는 의왕시도 평준화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학부모의 호소가 너무 절박하다며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평준화를 실시해 우리 2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자고 밝혔다.

Copyright ©2000 by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Please forward any comment to Webmaster.